

# 韓·美 국방, 전작권 전환 시각차... 방위비 분담도 압박

(전시작전통제권)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  
韓 “전작권 전환조건 조기 구비”  
美 “조건 충족때까지 시간 걸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는 15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 내일이고 진솔한 소통이었다며 호평했지만,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SCM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첫 대면장이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7조에

명기해 왔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도 미국측 요구로 빠졌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SCM 이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마저도 취소가 되면서, 양국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취소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해 와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리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SCM이 열리는 기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5일 오후 3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 실장을 국무부 청사에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면담 내용은 비공개”라고 공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metroseoul.co.kr

## ICT 수출 176억 달러... 4개월 연속 증가

산업부, 9월 전년비 11.9% 증가  
시스템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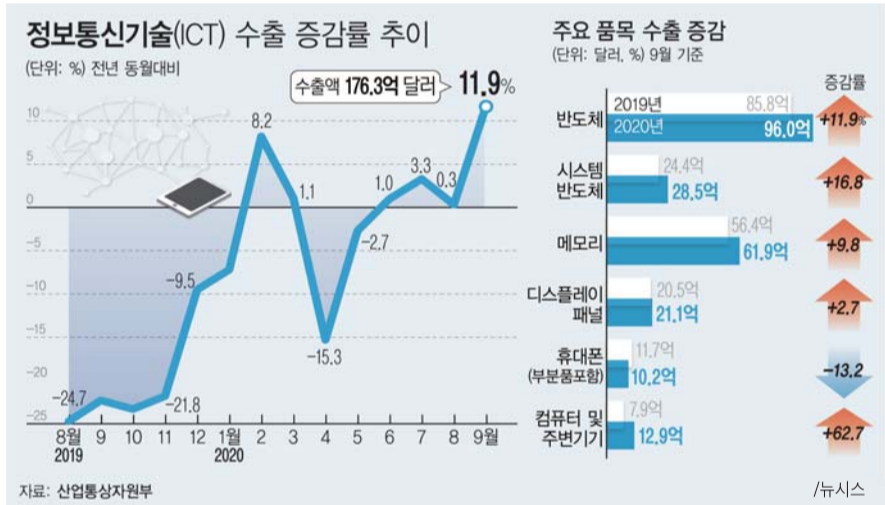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9월 ICT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 176억30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했다. ICT 수출은 올해 6월 149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품별로는 반도체(11.9% ↑)와 디스플레이(2.7% ↑), 컴퓨터 및 주변기기(62.7% ↑)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D램과 낸드 수요 증가로 메모리반도체(9.8% ↑) 수출이 늘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등 수요 증가로 시스템반도체(16.8% ↑)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휴대전화 부문 수출은 부분품(25.7% ↓) 수요가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 81억7000만 달러, 베트남 31억1000만 달러, 미국 20



억4000만 달러, 유럽연합 10억7000만 달러로 증가한 반면, 일본 수출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 빠졌다.

중소·중견 기업의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어난 40억8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 반도체(11.1% ↑)와 전기장비(11.9% ↑) 등 수출이 늘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9.8% ↓) 수출은 줄었다. 중소기업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9% 늘어난 16억6000만 달러로, 접속부품(24.2% ↑)과 인쇄회로기판(PCB·104.3% ↑), 전기장비(17.1% ↑) 부문 수출이 증가했다.

9월 ICT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95억6천만 달러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20% ↑)와 반도체(15.3% ↑) 부문 수입이 늘었다. 휴대전화(33.8% ↓)와 디스플레이(0.2% ↓) 부문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만(24.8% ↑), 일본(2.7% ↑)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고 중국(12.4% ↓), 베트남(16.4% ↓), 미국(14.5% ↓), 유럽연합(0.2% ↓)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다.

9월 ICT 무역 수지는 80억7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51억 달러), 디스플레이(17억8000만 달러), 휴대전화(4억4000만 달러) 등 부문에서 흑자를 냈다. /한용수 기자 hys@

## 서훈 안보실장, 韓 정세 등 한미현안 협의

美 방문 폼페이오 장관 만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5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앞서 이달 초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 가운데 한국 방문이 연기된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미국 워싱턴에 가면서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8일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 회의의 일정만 참여하는 것으로 일정을 축소하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13~16일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방문해 14일(현지 시각) 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



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14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오후 3시 서훈 안보실장과 국무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차를 고려할 경우 한국 시각 16일 오전 서 실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 실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미국 방문에 대해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6GHz 대역’ 비면허통신용 주파수 공급

과기정통부, 5G 수준 데이터 전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기가헤르츠(GHz) 대역(5925~7125MHz, 1.2GHz 폭)을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 비면허 통신용 주파수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6월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행정예고했으며, 의견수렴과 12일 주파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6GHz 대역을 이용한 5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시대가 열리게 됐다. 6GHz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도로폭(채널폭)과 많은 차선(채널수)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이자 6GHz 대역을 이용한 와이파이 공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이다.

이용조건은 실내에서는 6GHz 대역 전체를 250mW 이하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카페·학교·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성능 열화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접속 가능 기기를 모뎀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공유기술인 테더링과 같은 기기간 연결은 6GHz 대역 하위 520MHz(5925~6445MHz)에 한정해 실내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기간 연결 허용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증강·가상현실(AR·VR) 단말’ 연결 등 5G 이동통신 확장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공급뿐 아니라 6GHz 대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차세대 와이파이 실증사업과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산업부,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유치 집중

지자체와 외국인 투자정책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지자체들과 외국인 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 유치에 집중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선,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부-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첨단산업 유치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첨단투자 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국내의 기업의 첨단 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

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현재 지자체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입국지원과 입지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 투자가 차질없이 현실화되도록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시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박정욱 투자정책관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해 첨단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